신한 Premier 리서치

Shinhan



Econ Signal 26-10

주요국 긴축 강화, 충격은 차별적

[매크로팀]

하건형 연구위원
keonhyeong.ha@shinhan.com

문서현 연구원
seoh.moon@shinhan.com

지정학 충격이 심화에 따른 유가 발 공급 충격에 대응해 주요국이 잇따라 금리 인상에 나섰습니다. AI 투자 수요가 구경제 부문까지 확산되며 경기 급랭 신호는 부재하나 고물가와 고금리 부담에 소비 하방 위험은 높아졌습니다. 긴축 효과를 지켜보는 관망 구간에서 부담이 소비로 집중될 주요국의 경기 및 정책 경로를 점검했습니다.

신한 리서치 투자정보
www.shinhansec.com

신한투자증권 투자전략부

글로벌 경제 동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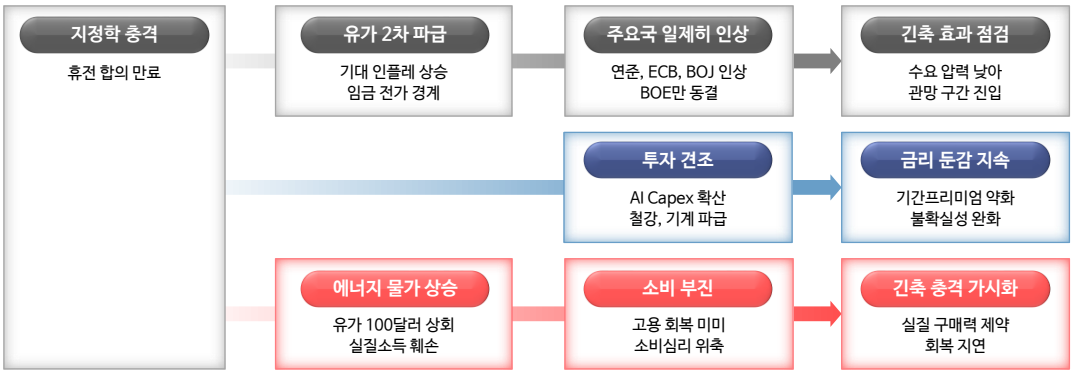


주요국 긴축 강화, 충격은 차별적

9월 동향: 주요국 유가 발 공급 충격에 일제히 대응. 국제유가 8월 중순 미-이란 휴전 만료 이후 재상승하며 브렌트유 기준 100달러 상회. 유가 발 공급 충격 2차 파급 경계하는 흐름 속 ECB와 Fed, BOJ 모두 정책금리 25bp 인상. BOE는 기준금리 3.75% 동결했으나 인상 소수의견 2명 → 3명으로 확대

경기는 고물가, 고금리에도 상대적으로 양호. AI CapEx가 데이터센터 건설로 확대되며 투자 연관 구경제 부문까지 회복 확산. 반면 소비 관련 흐름은 상대적으로 미약. 대량 해고에 따른 경기 급랭 신호는 부재하나 회복세 약하고 고물가, 고금리 부담에 소비심리 위축 관찰

10월 전망: 주요국 통화정책 기존 긴축 효과 점검 구간 진입 전망. 강한 성장에도 소비자물가 주도하는 가계 수요 부진해 수요 측 인플레 압력 높지 않기 때문. 추가 지정학 충격 동반되지 않는 이상 관망 구간 위치할 전망. 2차 파급 확인 여부가 금리 경로 가르는 핵심 변수. 경기는 긴축 부담이 투자보다 소비에 집중될 전망. 투자는 금리에 둔감한 반면 소비는 고유가, 고금리 여파 심화되는 가운데 밋밋한 고용 회복세 감안 시 긴축 충격 가시화 경계. 인플레 위험과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야기했던 기간 프리미엄 중심 장기금리 상승세 약화되며 금융시장 불확실성 오히려 걷히는 구간



자료: 신한투자증권

9월 주요 이벤트

- ✓ **미국 8월 CPI:** 헤드라인(MoM +0.4%), 핵심 물가(MoM +0.3%). 석유제품·서비스가 상승 견인
- ✓ **미국 8월 고용보고서:** 8월 비농가취업자수 전월대비 16.2만명 늘며 컨센서스(+5.3만명) 대폭 상회. 재화생산업 회복(+1.6만명)은 추세적이나 임금 상승률 물가 하회하는 등 수요 측 인플레 압력 미미
- ✓ **한국 8월 수출입:** 8월 수출(YoY +68.7%)은 전 기간 역대 2위 실적 기록. AI IT 수출 사이클 유효

10월 전체 이벤트 일정



일	이벤트	포인트
월중	IMF·세계은행 연차총회	글로벌 성장, 물가 전망과 금융시장 안정성, 주요국 재정 여건 점검. 중동발 공급 충격과 AI 투자, 고금리 및 재정 부담에 대한 IMF의 시각 확인
1일	한국 9월 수출입동향	8월 수출 YoY 68.7% 증가. 반도체 수출 재차 최대치 경신하며 정점 통과 우려 불식. 향후 리스크 환경 속 AI 노출도에 따른 실적 차별화 흐름 이어질 전망
	미국 9월 ISM 제조업지수	8월 ISM 제조업은 54.6으로 전월대비 소폭 둔화. AI 인프라 수요가 IT 하드웨어에서 철강·기계로 파급되며 견조한 흐름 이어질 전망. 다만 공급망 부담 상존
2일	한국 9월 소비자물가	8월 전년대비 3.1% 상승하며 상승폭 확대. 통신비 기저효과에 서비스 물가 반등한 영향. 9월 기저 소멸 속 둔화 우세하나 수요 측 물가 압력 경계 필요
	미국 9월 고용보고서	8월 비농업고용 16.2만명 증가. 6~7월 서비스업 중심 기저효과 및 재화생산업 회복 영향. 다만 임금 상승률 5년래 최저·물가 하회해 수요 측 물가 압력 미미
14일	중국 9월 물가	8월 CPI 전년대비 +0.8%, PPI +3.8%로 상승폭 확대. 원자재·교통·헬스케어 견인. 9월도 유가 급등에 PPI 오름세 이어지겠으나 소비 부진에 CPI 오름폭 제한 예상
	미국 9월 소비자물가	8월 물가 전월대비 +0.4%, 전년대비 +3.4%로 상승폭 확대. 핵심 물가도 가속. 석유제품·고변동성 서비스 상승 주도. 유가 100달러대 유지 시 4% 진입 우세
19일	중국 3분기 GDP, 9월 동행지표	8월 산업생산 +5.2%로 예상 상회했으나 소매판매 +0.4%, 고정자산투자 -7.2%로 내수 부진 심화. 3분기 GDP는 수출 호조에도 내수 위축에 4%대 초반 성장 전망
20일	중국 대출우대금리 결정	작년 인하 후 1년 넘게 동결 유지. 2분기 통화정책보고서에서도 인하 신호 부재. 물가 반등과 수출 호조 속 재정 중심 대응 예상되는 만큼 10월도 동결 우세
22일	한국 금통위 회의	8월 25bp 인상(3.00%)하며 2회 연속 인상. 점도표 중간값 3.25%로 추가 인상 시사. 다만 4분기까지는 선제적 긴축 효과 확인하며 금리 동결 기조 무게
27일	한국 3분기 GDP	2분기 GDP 전기대비 +0.6%로 1분기 기저효과에도 반도체 수출이 성장 주도. 3분기는 반도체 수출 호조의 내수 확산 구간에 진입하며 견조한 성장 전망
28일	미국 FOMC 회의	9월 만장일치 25bp 인상(3.75~4.00%). 성명서 공급충격 문구 삭제. 점도표 상 연내 추가 인상 전망이나, 유가 2차, 3차 물가 파급 제한 시 연내 동결 유력
29일	유로존 ECB 통화정책회의	9월 25bp 인상(2.50%). 성명서 내 물가 상당 기간 목표치 상회 명시하는 등 매파적 색채 강화. 에너지발 2차 파급효과 확인하며 연내 동결 유력
	미국 3분기 GDP	2분기 GDP 전기대비 +1.5%(SAAR). 수입 급증·재고 소진 영향에도 민간 최종 수요는 견조. 3분기는 투자 확대에도 소비 모멘텀 약화로 성장폭 축소 전망
30일	한국 9월 산업활동동향	7월 생산 보합, 소매판매 자동차 선수요 소멸에 -2.4%, 설비투자는 +7.5%. 소비와 투자 온도 차 뚜렷해진 가운데 추후 IT 투자 확산되며 경제 회복 지속 기대
	일본 BOJ 통화정책회의	9월 25bp 인상(1.25%). 양호한 소비 속 유가 상승과 엔저에 따른 수입물가 발 상방 압력이 인상 배경. 다만 금번 인상 2명 반대의견에 긴축 속도 신중할 전망
	유로존 3분기 GDP	2분기 GDP 전기대비 +0.6%로 속보치 상회. 아일랜드 급성장(+10.2%)에 독일 +0.3%, 프랑스 0.0% 상쇄. 3분기는 PMI 확장세 속 완만한 성장 전망
31일	중국 9월 국가통계국 PMI	8월 제조업 PMI 49.8로 신규주문·생산 확장 전환하며 위축폭 축소. 9월은 기상악재 해소·수출 호조에 50선 회복 시도하나 중소기업 부진에 반등폭 제한 예상

자료: 신한투자증권

국가별 동향 및 전망



미국: 일회성에 가려진 지표, 연속 인상보다 동결

동향: 연준 9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만장일치로 25bp 인상해 2023년 7월 이후 첫 인상 단행. 점도표에서 18인 중 16인이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 시사. 4인은 2회 인상 제시. 다만 2027년 전망은 인상 8인, 동결 6인, 인하 4인으로 분산돼 연속 인상보다 공급 충격 대응 성격

고용과 물가 일회성 효과 섞여 해석 엇갈림. 8월 비농가취업자 16.2만명 급증했으나 외식과 지방정부 교육 등 7월 감소분 되돌림 영향. 소비자물가 전월대비 0.4%, 전년대비 3.4% 올랐는데 휘발유 급등 영향. 핵심물가는 전월대비 0.3% 올랐으나 통신, 숙박, 항공료, 교육 등 일회성 높은 품목 부각

전망: 9월 30일 BEA 연간 개정에서 물가 안정과 성장 지표 확대 가능. 핵심 PCE가 핵심 CPI 1%p 가까이 상회한 부분이 축소될 여지. 10월 FOMC 회의에서는 연속 인상 여부가 관건. 유가 발 물가의 2차, 3차 파급 확인, 실물경기 둔화 정도,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장기금리 상승 가능성이 판단 변수

지정학 충격 현 수준 관리 시 동결 무게. 9월 인상 충격 속 소비 중심의 완만한 둔화 예상되는 가운데 임대료 안정과 완만한 고용 창출 감안 시 유가 발 2차, 3차 파급 제한적 전망. 10월 2일 발표될 9월 고용지표에서 8월 일회성 요인의 되돌림 확인되면 금리 동결 명분 강화

한국: 반도체 수출 낙수효과 속 연속 금리 인상

동향: 한국 8월 수출 전년대비 68.7% 증가하며 3개월 연속 900억달러 상회. 반도체와 컴퓨터 중심 AI 수출 호조 지속되는 가운데 철강, 기계 등 투자 관련 품목 수출 개선. 8월 소비자물가 전년대비 3.1%, 핵심 물가 3.4% 올라 상승폭 확대했으나 통신요금 기저효과 감안 필요. 8월 금통위에서 수출과 내수 회복, 물가 상방 위험 근거로 기준금리 3.00%로 2회 연속 인상

7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전산업생산 전월대비 보합. 소매판매 2.4% 감소해 부진한 반면 설비투자 7.5% 증가하며 소비와 투자 간 엇갈린 흐름. 선행 및 동행지수 동반 상승해 경기 회복 방향성 유지

전망: 소비는 고금리, 고유가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회복세 약하나 반도체 중심 수출과 설비투자 호조가 경기 회복 주도 판단. 선행지표에서도 소비 관련 지표는 부진한 반면 수출과 투자는 상대적으로 견고. 특히 부진했던 건설투자 역시 부동산 공급 정책 확대 영향에 회복 기대

10월 금통위에서는 7~8월 연속 인상 효과 확인하며 기준금리 동결 무게. 2027년 예산안에서 총지출 전년대비 12.8% 증가 예고.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지원 강화해 투자 경기 뒷받침. 내년으로 가면서 인센티브 지급 등 효과로 소비 회복 가시화 판단



유럽: 국지적 경기 회복, 에너지 물가 위험 증대

동향: 완만한 경기 회복 지속. 8월 HCOB 제조업 PMI 52.7로 상승해 4년여 만에 최고치 기록. 서비스업 PMI 역시 51.6으로 확장 국면 유지. 2분기 GDP 전기대비 0.6% 성장한 가운데 7월 수출 전년대비 9% 늘며 대외 부문 개선. 다만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0.6% 감소하며 소비 부진 시사

8월 소비자물가 에너지 가격 상승에 전년대비 3.3% 올라 상승폭 확대. 그럼에도 핵심 물가 2.4% 상승에 그치며 둔화. ECB 2026~27년 경제성장률 전망 상향하며 3대 정책금리 25bp 인상. 임금과 핵심 물가, 기대 인플레이션 감안 시 에너지 가격의 2차 파급은 우려보다 제한적 상황

전망: AI 관련 수요 제조업 하단 지지하나 회복 범위 제한적 전망. EU 기가팩토리 입찰 가동 2027~2028년 예정돼 단기 수요는 민간 데이터센터 투자 견인. AI 인프라 연관 업종 수주 확산되나 산업용 전기료 비용 상승 속에 화학 및 금속 등 에너지 집약 업종 마진 압박 지속. 2027년 EU 예산안 제출에서 정책 기조 확인 필요하나 재정준칙 부담 감안 시 독일 외 확장 폭은 제한적 전망

천연가스 저장률 68%로 5년 평균 16%p 하회. 겨울철 에너지 가격 상방 위험 잔존해 ECB 에너지 발 2차 파급 경계 지속. 다만 10월 회의에선 기존 정책금리 인상 효과 살펴보며 금리 동결 무게

일본: 보조금이 떠받친 소비, 만료 앞둔 시점

동향: 9월 BOJ 통화정책회의에서 정책금리 25bp 인상해 1995년 이래 최고 수준 도달. 직전 인상과 간격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돼 인상 속도 가속. 우에다 총재는 물가 목표 상방 이탈해 경제 훼손하는 상황 피해야한다고 언급해 기자회견 기대보다 덜 매파적

실물 지표 양호. 7월 산업생산 전월대비 0.1% 늘었으며 소매판매 역시 2.4% 급증하며 6월(-4.1%) 부진 일부 만회. 임금 상승과 전기 및 가스 요금 보조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 8월 수출은 전년대비 19.3% 늘었으나 수입이 에너지 가격 상승 여파에 28% 늘며 무역수지 1.1조엔 적자로 4개월째 적자

전망: 9월말 전기 및 가스 요금 보조 만료. 7~9월 한시적으로 일반 가구당 5,000엔 경감 효과가 소비 뒷받침. 직전 겨울(가구당 7,300엔)보다 지원 규모 축소 시 실질소득 개선폭 뚜렷하게 감소. 2023년에도 9월 종료 예정 연료비 보조 연장하되 단가 절반으로 낮춘 전례 있어 비슷한 정책 기조 관찰 가능

보조금 정책 유지 시 BOJ 금리 인상 기조 이어갈 전망. 반대로 보조 축소 시 물가 상방 위험 높아지지만 소비 둔화로 BOJ 신중해질 여지 우세. 확장 재정이 통화 긴축을 가능하게 하는 역설적 구도. 유가 100달러 상회와 엔화 약세 병존하는 한 무역적자 확대와 수입물가 부담 이어질 전망



중국: 양극화 심화, 내수 회복 지연

동향: 생산 지표 반등에도 내수 부진 지속. 8월 국가통계국 제조업 PMI는 49.8로 전월대비 0.6p 상승했으나 50선 하회. 산업생산은 전년대비 5.2% 증가하며 전월보다 반등한 반면 소매판매는 0.4% 증가에 그치고 누적 고정자산투자는 7.2% 감소. 부동산 개발투자 19.9% 감소하며 전통경제 부진 지속

생산과 내수 간 괴리 확대. 고기술 제조업 생산은 전년대비 16.7% 증가해 전체 생산 회복을 주도. 8월 수출도 25.0% 늘며 대외 수요 양호. 반면 내수 개선 제한돼 생산·수출과 소비·투자 간 차별화 심화. 첨단산업 중심 성장과 전통경제 부진이 병존하는 경기 양극화 흐름 지속

전망: 적극적 재정과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속 내수와 투자 하단 방어 강화 전망. 9월 소비 확대 조치와 8,000억위안 규모 정책성 금융수단 집행이 시작되며 내수 부양 노력 확대. 6대 네트워크 등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집행도 본격화되며 4분기 투자 하방 압력 완화 예상. 다만 부동산 침체와 민간 신용 수요 약화 감안 시 정책 효과 시차 불가피. 첨단산업 중심 선별적 회복 기조 이어질 전망

10월 국경절 연휴 소비를 통해 소비 진작 정책 효과 확인 필요. 19일 3분기 GDP에서 부진한 성장세 연장 전망. 대외 수요 및 신경제 투자 확대에도 내수 부진이 엇갈리며 성장세 억제 판단

인도: 견조한 성장 속 대외부담 확대

동향: 견조한 경기 흐름 지속. 4~6월 GDP 전년대비 7.8% 성장해 시장 예상(7.1%) 상회. 민간소비 7.1% 증가한 가운데 고정투자와 수출이 각각 11.9%, 12.0% 늘며 성장 견인. 8월 소비자물가 전년대비 4.8% 상승해 2024년 12월 이후 최고치. 도매물가 10.0% 올라 소매물가 크게 상회해 전가 압력 누적

정책 측면 루피화 방어 조치 부작용 부각. RBI 6월 도입한 특별 스왑으로 8월말까지 1,300억달러 넘게 유입돼 목표치(500억달러) 2배 이상 기록. 은행 유치한 달러 RBI 넘기고 루피 받는 구조로 은행권 잉여유동성 급증. 이에 1조루피 규모 국채 OMO 매각 발표. 발표 직후 국채 10년 금리 7% 상회

전망: 성장은 투자 중심 견조한 흐름 이어지겠으나 유가 부담이 변수. 원유 수입 90% 가까이 해외 의존하는 구조상 유가 100달러 상회는 무역수지와 물가에 동시에 부담. 루피화는 외환보유액 확충으로 방어 여력 커졌으나 특별 스왑 창구가 8월말로 종료. 금융 안정 위한 환율 방어 정책 재등장 가능

견조한 성장 속 물가 부담 확대로 RBI 긴축 필요성 점증. 고유가에 따른 수입물가 압력에 엘니뇨발 식품가격 불확실성도 일부 가세하며 10월 금리 인상 가능성 확대. 다만 국채 매각에 따른 유동성 흡수 효과 지켜보며 12월까지 인상을 미룰 가능성도 상존. 도매물가의 소매물가 전가 여부 확인 필요

금융시장 동향 및 전망



외환시장: 수급이 눌러온 환율, 제한적 상단

동향: 달러화지수 100p 내외로 상승. 예상보다 양호한 미국 경기와 물가에 대응한 긴축 기조로 강 달러 압력 부각. ECB와 BOJ도 9월 중 인상 나섰으나 연준은 연내 추가 인상 예고한 결과. 월 후반으로 가며 미국과 비미국 간 금리 차 확대 인식이 강화된 점도 달러화 강세 자극 요인

원/달러 월 초반 수출업체 네고 물량 유입과 BOJ 인상 가속화 경계에 따른 엔화 강세에 연동되며 1,330원대까지 후퇴. 월 중반으로 가면서 1,300원 후반으로 반등. 국민연금의 기존 환헤지 중단 소식과 함께 수출 네고 유입 약화. 예상보다 매파적이지 않은 BOJ 결정에 엔화 약세 되돌림 겹친 영향

전망: 미국 경기와 물가에 대한 시각 상향 9월 지표를 보며 일부 되돌림 예상. 8월 고용과 소비를 끌어올린 일회성 요인의 반작용 여부 관건. 9월 고용지표가 첫 관문. 비미국은 선제적 인상으로 경기 눈높이가 이미 낮아진 반면 미국은 시차 두고 둔화 확인 구간으로 양측 간 시각 차 좁혀질 전망

원/달러 하락 되돌림 예상. 9월에도 무역흑자 300억달러 이상 예상돼 수출 네고 대기 물량 충분. 경기 모멘텀 측면에서도 미국 대비 양호한 흐름 예상되는 만큼 강 달러 압력 약화 시 하향 재개 전망. 다만 국민연금 환헤지 축소 속에 유가 100달러 상회 시 교역조건 악화 우려로 원/달러 하락 제한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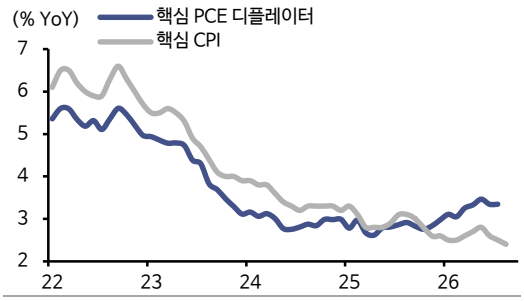
상품시장: 실질금리 하락과 공급 충격

동향: 미-이란 교전 재개와 연준 금리 인상 속 품목별 차별화. (WTI) 미-이란 교전 격화에 국제유가 100달러 상회. 특히 사우디 동서송유관 가동 중단으로 공급 우려 확대됐으나 아람코 송유관 물량 절반 복구 기대에 공급 우려 일부 완화. (금) 연준 3년 만 금리 인상 나섰으나 선반영 인식에 장기금리 상승 제한되자 실질금리 하락 기대 속에 매수세 유입. 장기채 대안자산으로서 매력 유지. (산업금속) 9월 중 사상 최고치 경신 후 미국 정련동 관세 결정 연기 보도에 가격 조정. 타이트한 실수급 유지. (농산물) 에너지 가격의 비료 비용 전가는 부담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 휴전 기대가 가격 상승 제한

전망: 공급 충격 장기화로 원자재 전반 비용 곡선 상향 이동하는 가운데 실물 자산 상대 매력 부각. (WTI) 현 수준 공급 차질 지속 시 100달러대 등락 예상. 비축유 소진은 상방 위험이나 높아진 유가가 수요 둔화 야기. (금) 공급 충격 대응 성격의 인상으로 최종 금리 경로 제한되는 가운데 장기채 대신 금의 대체 수요 확대되며 우상향 기조 유효. (산업금속) 하이퍼스케일러 AI 인프라 지출의 60% 이상이 전력, 냉각, 건설에 배분돼 지출 구성이 구리 수요에 긍정적. 인허가 지연에 따른 실수요 이연은 부담. (농산물) 비료, 에탄올 경로로 에너지 가격 전가되는 가운데 재고 여력 축소로 상방 위험 잔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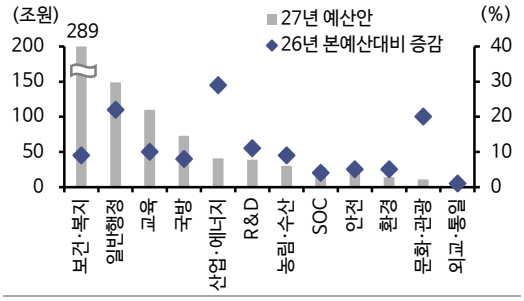
Key Chart

미국: 핵심 PCE 디플레이터와 소비자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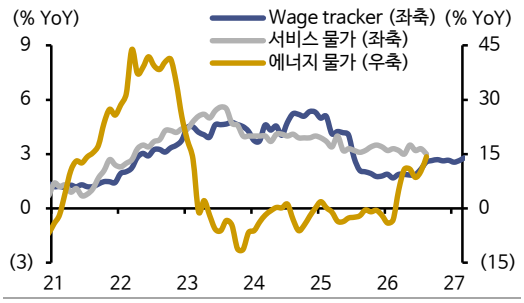
자료: CEIC, 신한투자증권

한국: 2027년 예산안 분야별 재원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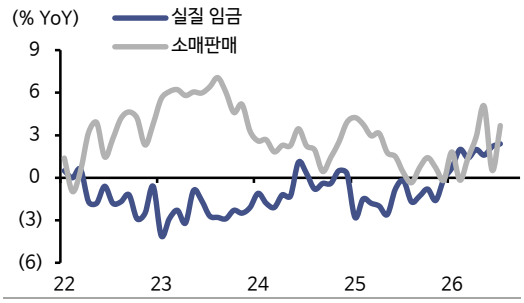
자료: 기획예산처, 신한투자증권

유럽: 임금 추적지표, 서비스와 에너지 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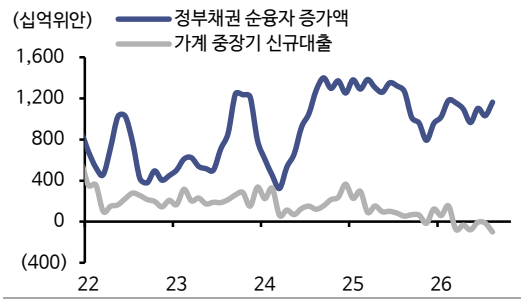
자료: LSEG, 신한투자증권

일본: 실질 임금과 소매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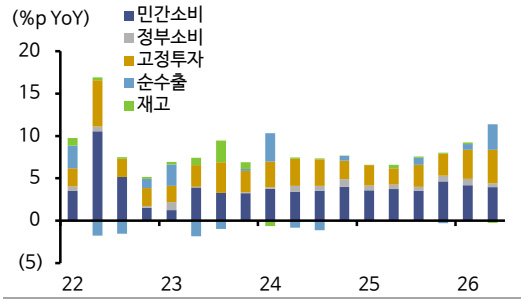
자료: CEIC, 신한투자증권

중국: 정부채권 순융자와 가계 중장기 신규대출



자료: CEIC, 신한투자증권

인도: 지출항목별 성장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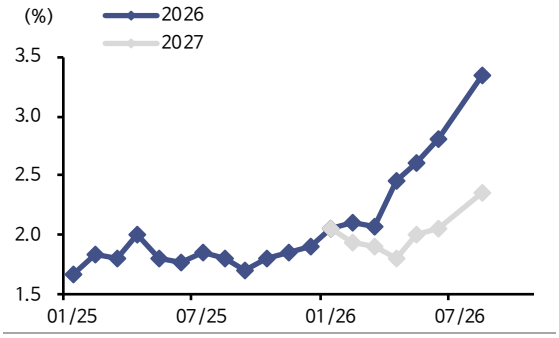


자료: CEIC, 신한투자증권

한국경제 Chart 2026년 경제성장률 컨센서스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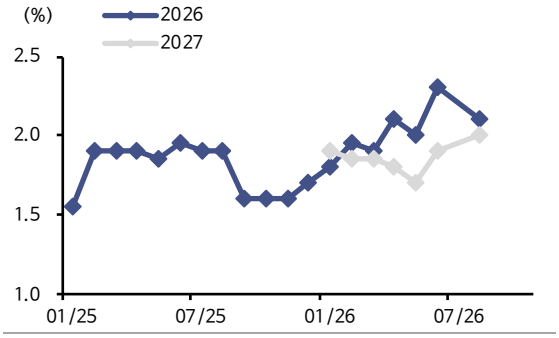
- 2026년 경제성장률 컨센서스 3.4%로 전월대비 대폭 상향. 민간소비 2.1%로 소폭 하향
- 2026년 수출 증가율 컨센서스 50.0%로 전월대비 대폭 상향, 수입 증가율 18.8%로 하향

연간 GDP 컨센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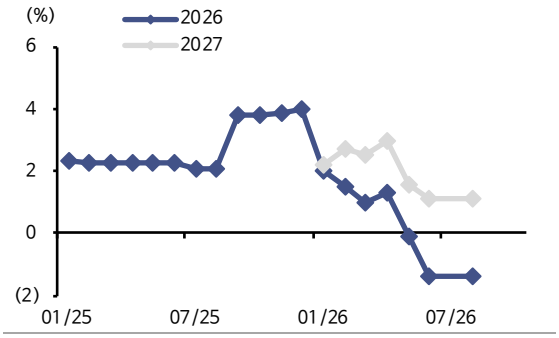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연간 민간소비 컨센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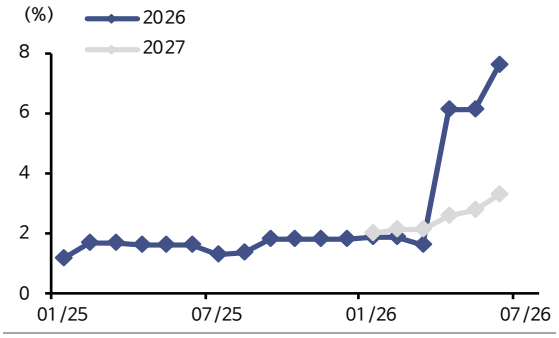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연간 건설투자 컨센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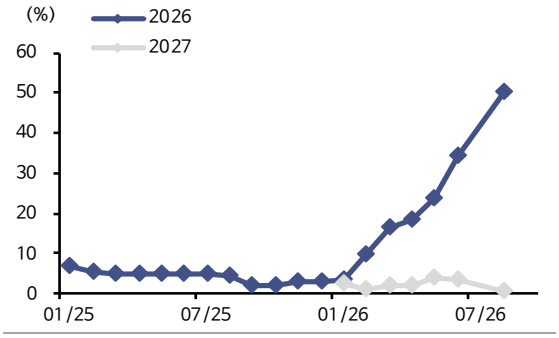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연간 설비투자 컨센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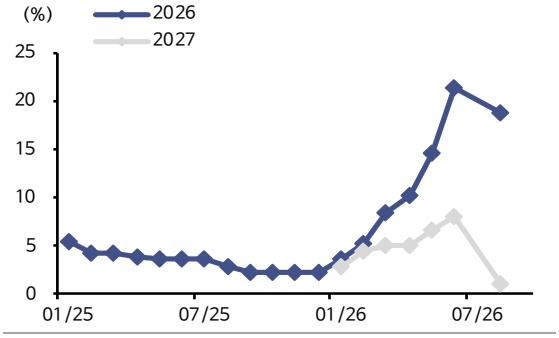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연간 수출 컨센서스



자료: FnGuide

연간 수입 컨센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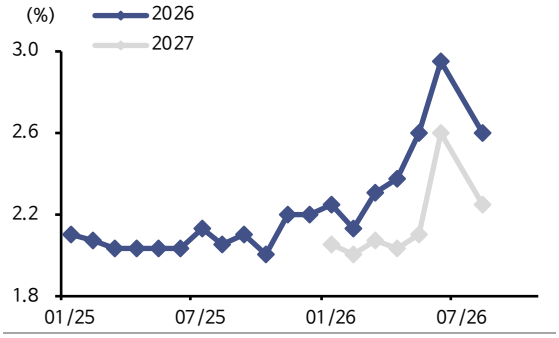


자료: FnGuide

한국경제 Chart 환율 컨센서스 하향, 설비투자 증가로 투자 주도 경기 확장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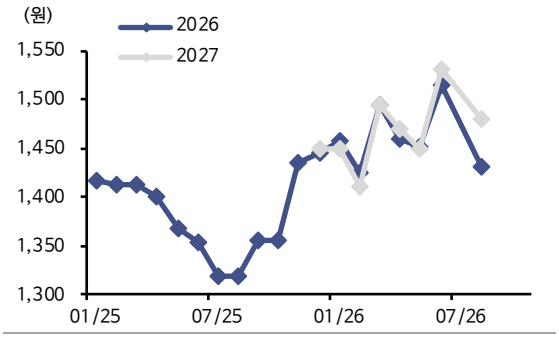
- 2026년 소비자물가 컨센서스 2.6%로 전월대비 하향. 원/달러 환율은 1,430.0원으로 대폭 하향
- 7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104.2로 소폭 상승. 7월 설비투자 전년동월대비 28.6% 증가하며 견조한 흐름

연간 소비자물가 컨센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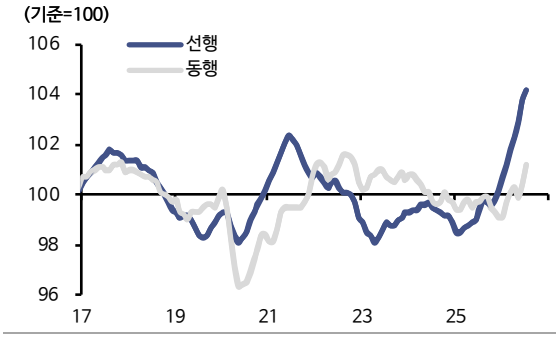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연간 원/달러 환율 컨센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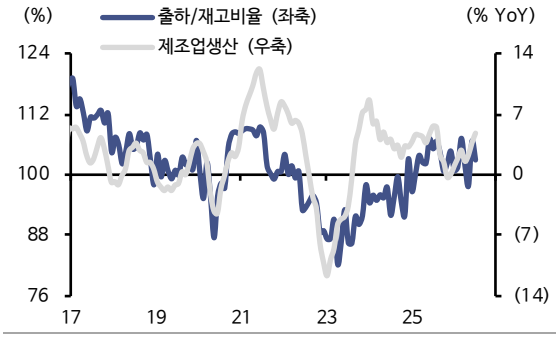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선행지수와 동행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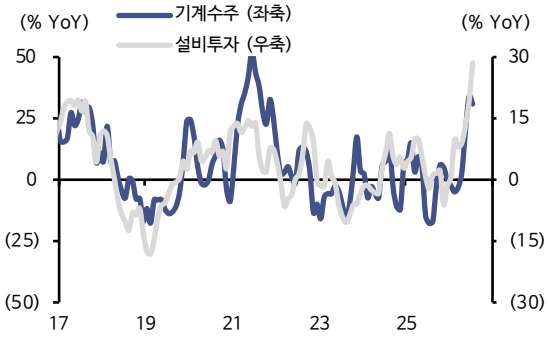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제조업 출하/재고비율과 생산



자료: 통계청

기계수주액과 설비투자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생산과 소비재판매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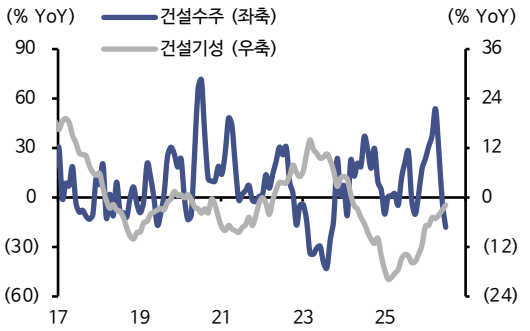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국경제 Chart 대규모 무역 흑자 기조, 실업률 하락 및 물가 상승률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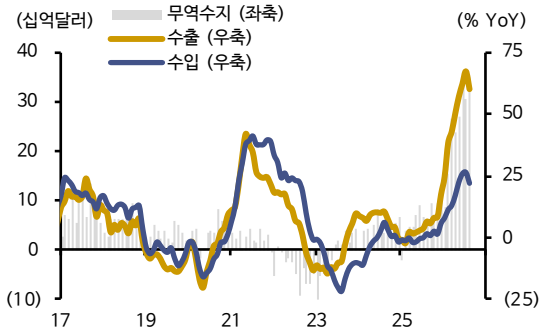
- 8월 수출 전년동월대비 60.2% 증가, 수입 21.9% 증가. 무역흑자 348억달러로 흑자 기조 유지
- 7월 실업률 2.7%로 전월대비 소폭 하락. 8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대비 3.1% 상승

건설수주액과 건설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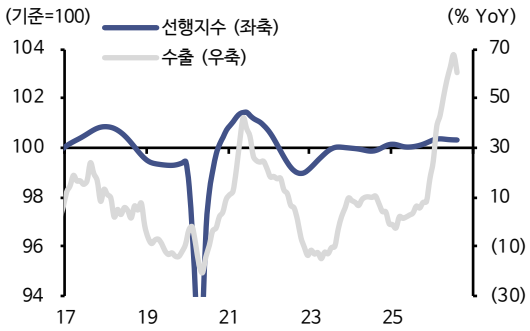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수출입



자료: KITA

G20 경기선행지수와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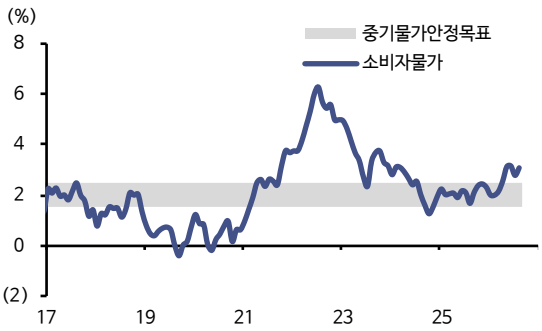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LSEG

취업자와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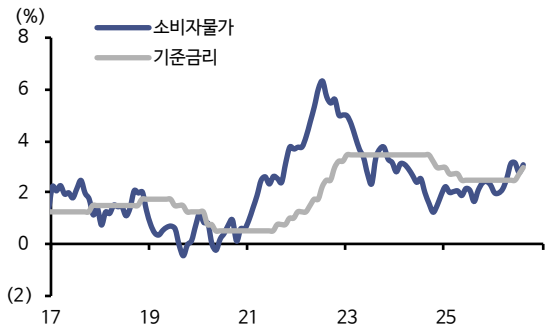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 (음영은 중기 물가안정목표)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와 기준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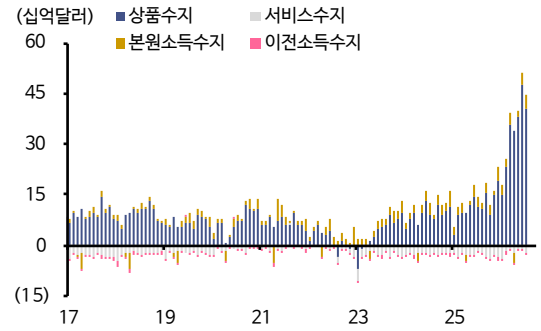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한국경제 Chart

원/달러, 강달러 압력 완화 속 오버슈팅 해소되며 강세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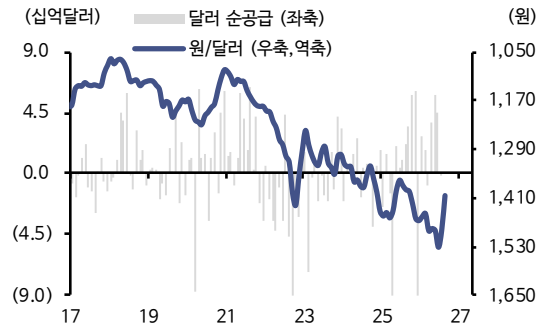
- 7월 상품흑자 404억달러 기록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 421억달러로 2개월째 400억달러 상회
- 코스피는 GPT-6 발 AI CapEx 기대 유입에도 매크로 부담 이어지며 6,000p 중후반대 등락

경상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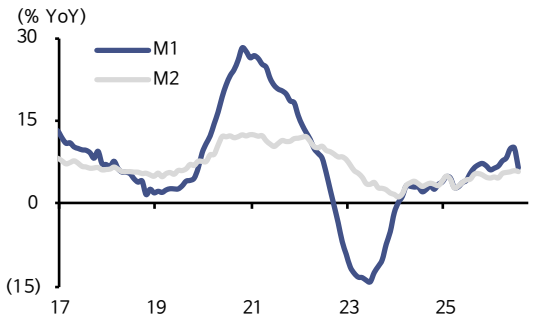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달러 순공급과 원/달러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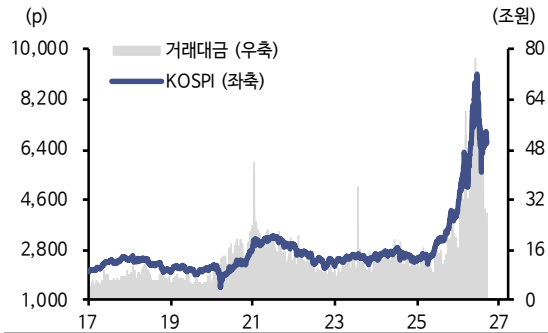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M1과 M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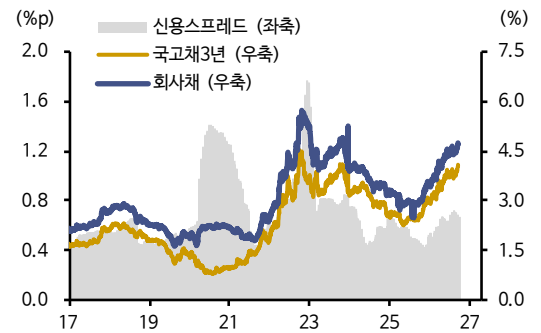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KOSPI와 거래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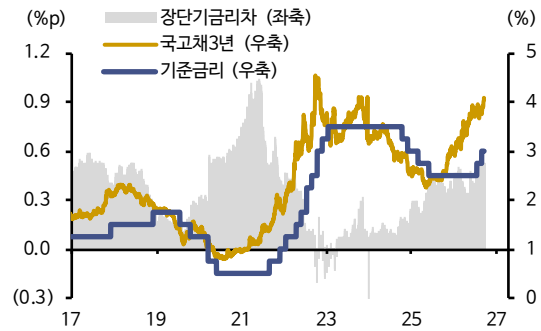
자료: 한국거래소

신용스프레드



자료: 한국은행

장단기금리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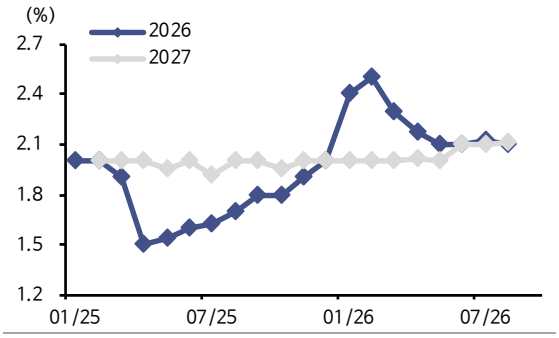


자료: 한국거래소

미국경제 Chart 2026년 경제성장률 컨센서스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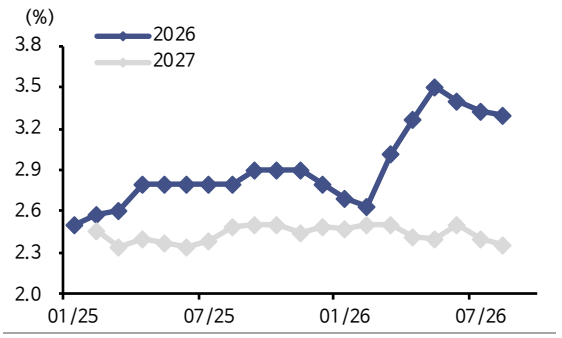
- 2026년 경제성장률 컨센서스 2.1%로 전월 수준 유지. 소비자물가 3.3%로 전월대비 소폭 하향
- 8월 ISM 제조업지수 54.6로 전월대비 소폭 하락. 서비스업지수 55.4로 전월대비 대폭 상승

GDP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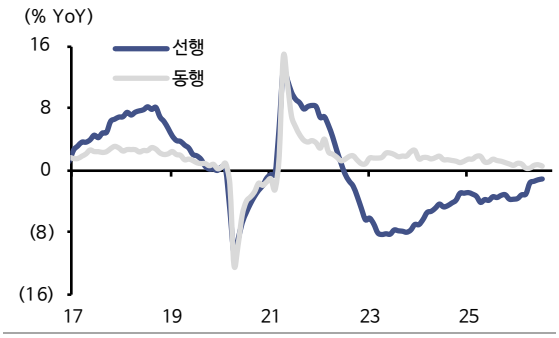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소비자물가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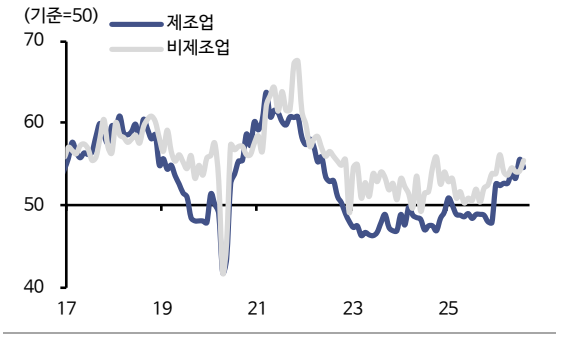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선행지수와 동행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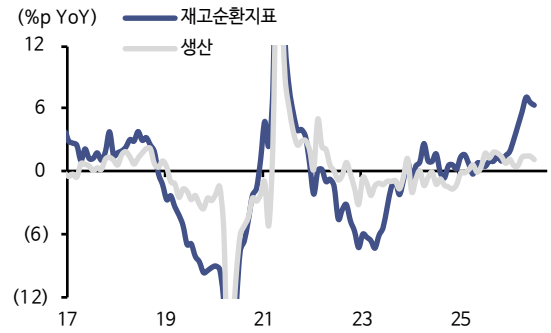
자료: LSEG

ISM 제조업과 비제조업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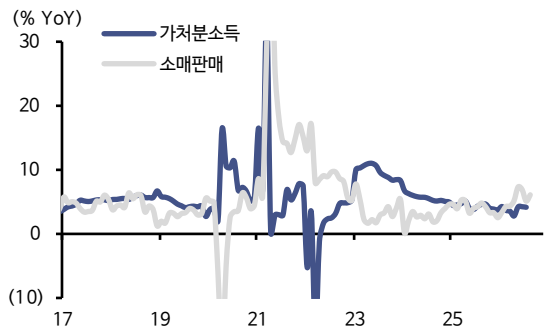
자료: LSEG

제조업 재고순환지표와 생산



자료: LSEG

가처분소득과 소매판매



자료: LSEG

미국경제 Chart 비국방핵심자본재주문 증가. 소비자물가 오름폭 축소

- 7월 비국방핵심자본재주문 전년동월대비 12.6% 증가. 8월 주택허가, 7월 건설투자 부진한 흐름 지속
- 7월 소비자물가 및 핵심소비자물가 전년동월대비 각 3.4%, 2.5% 상승하며 오름폭 전월대비 동일

비국방 핵심자본재주문과 설비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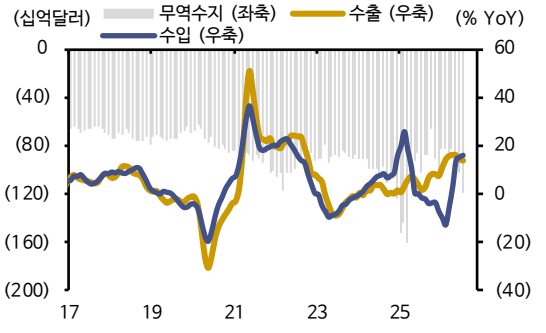
자료: LSEG

주택건축허가와 건설투자



자료: LSEG

수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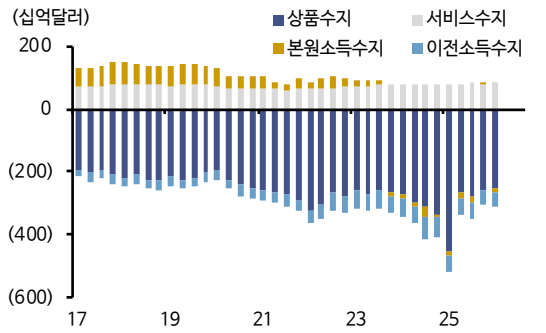
자료: LSEG

인플레이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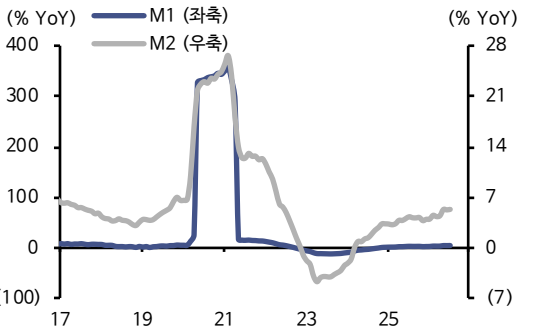
자료: LSEG

경상수지



자료: LSEG

유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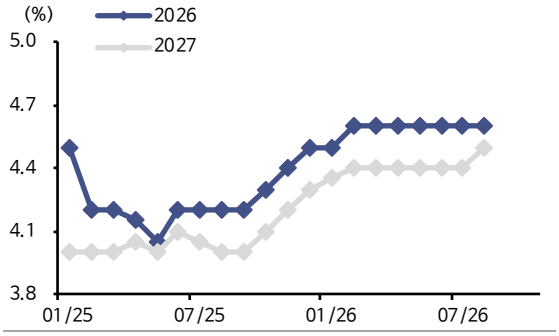


자료: LSEG

중국경제 Chart 2026년 경제성장률 컨센서스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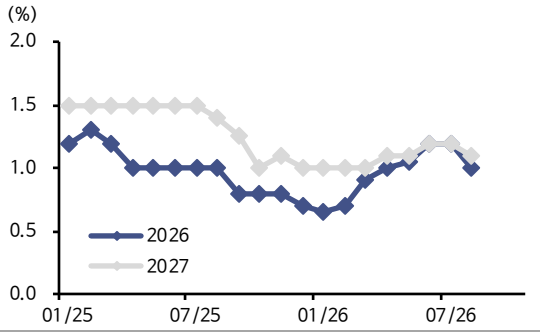
- 2026년 경제성장률 컨센서스 4.6%로 전월 수준 유지. 소비자물가 상승률 1.0%로 전월대비 소폭 하향
- 8월 제조업지수 전월대비 소폭 상승한 49.8 기록했으나 위축 국면 지속. 제한된 경기 회복세 시사

GDP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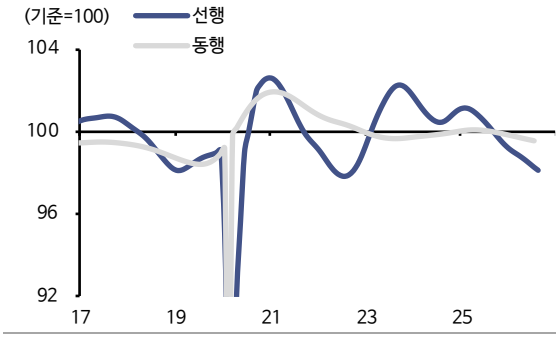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소비자물가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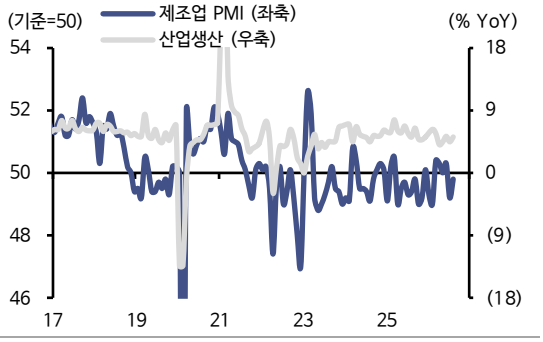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선행지수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자료: LSEG

제조업PMI와 산업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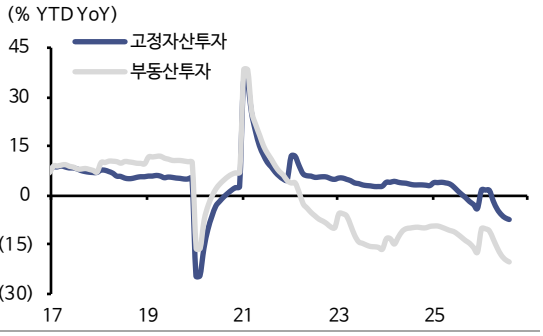
자료: LSEG

소비심리지수와 소매판매



자료: LSEG

고정자산투자와 부동산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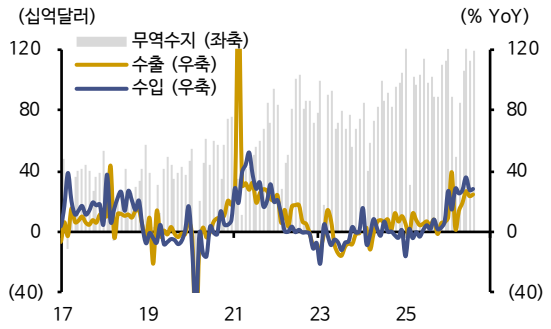


자료: LSEG

중국경제 Chart 무역흑자 증가, 생산자물가 상승폭 확대, 내수 부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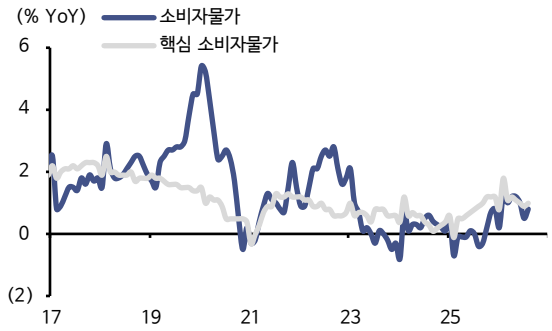
- 8월 무역 흑자 1,191억달러 기록, 수출입 각각 전년동월대비 24.7%, 28.2% 증가
- 8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대비 0.8% 상승. 생산자물가 3.8% 상승. 내수 부진이 물가 상승 제한

수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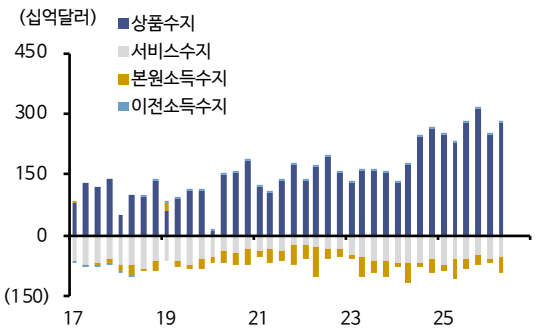
자료: LSEG

인플레이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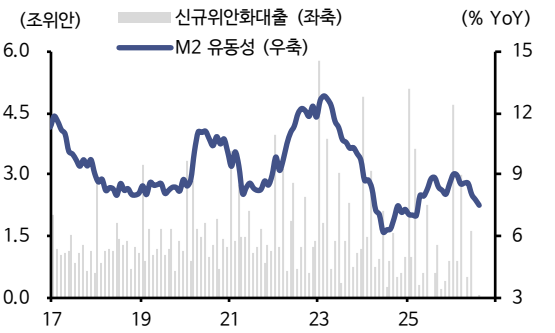
자료: LSEG

경상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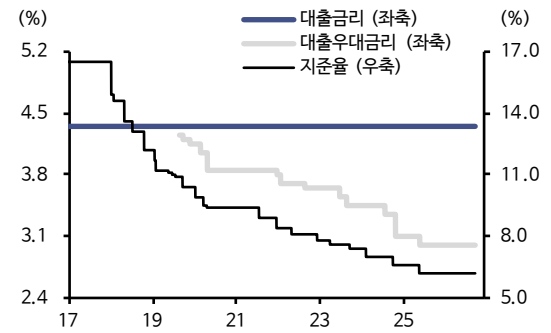
자료: LSEG

유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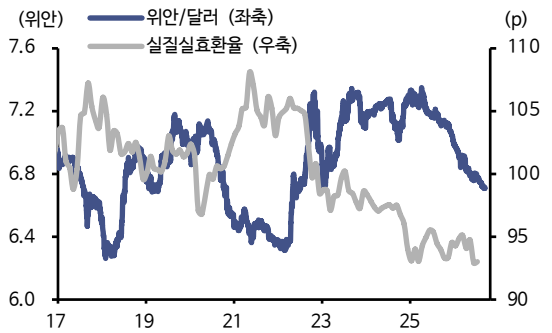
자료: LSEG

지준율과 대출금리



자료: LSEG

위안/달러 환율과 위안화 실질실효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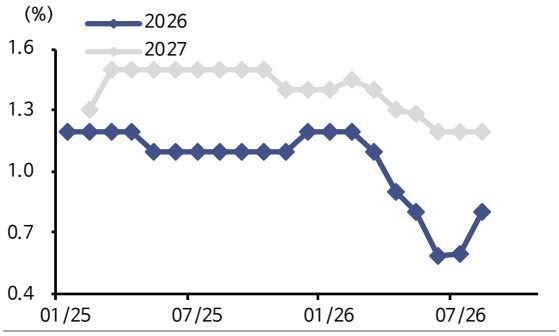


자료: LSEG

유로경제 Chart 2026년 경제성장률 컨센서스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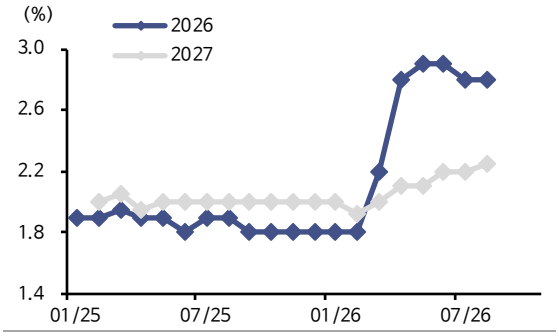
- 2026년 경제성장률 컨센서스 0.8%로 전월대비 상향. 소비자물가 상승률 2.8%로 전월 수준 유지
- 9월 유로존 ZEW 경기심리지수 25.8로 하락. 8월 제조업 PMI 52.7로 소폭 상승하며 확장 국면 지속

GDP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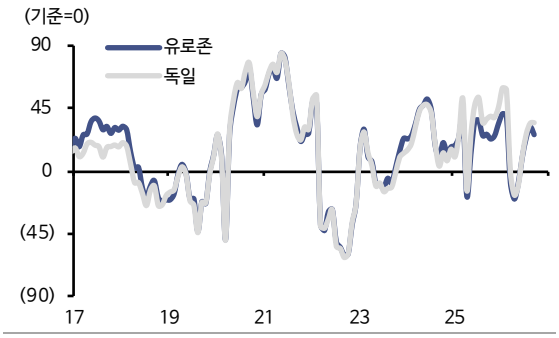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소비자물가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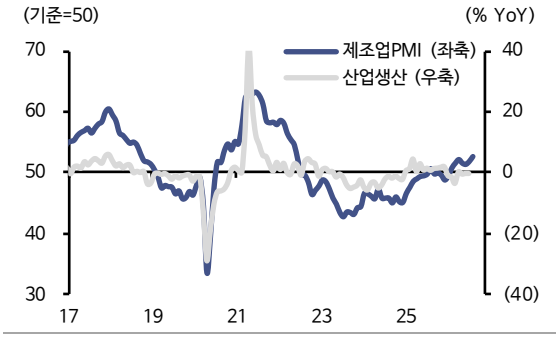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로존과 독일 ZEW 경기심리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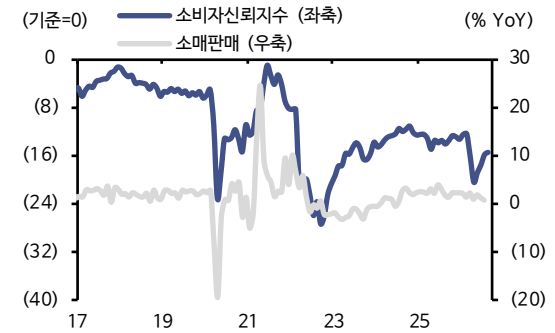
자료: LSEG

제조업PMI와 산업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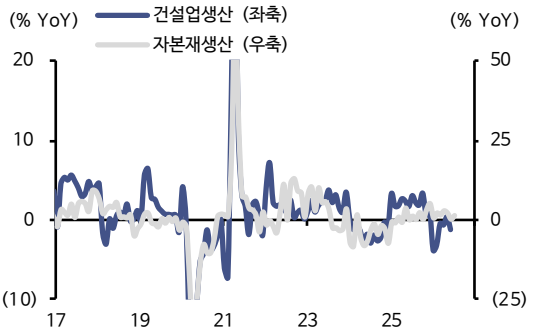
자료: LSEG

소비자신뢰지수와 소매판매



자료: LSEG

건설업생산과 자본재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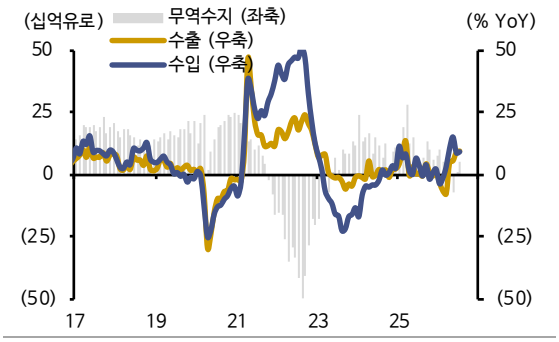


자료: LSEG

유로경제 Chart 소비자물가 상승폭 확대, 무역수지 흑자 지속

- 7월 수출 전년동월대비 9.23% 증가, 수입 9.1% 증가. 무역수지 50.3억유로 흑자 기록
-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3% 상승하며 오름폭 확대, 물가 목표(2.0%) 상회

수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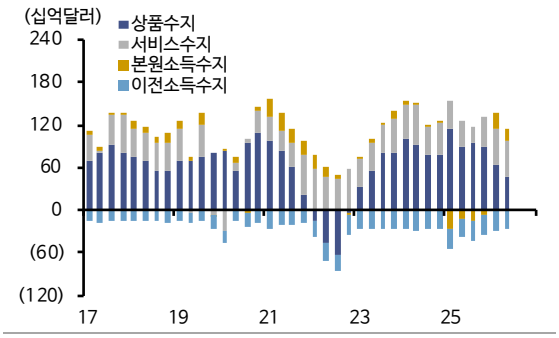
자료: LSEG

인플레이션율



자료: LSEG

경상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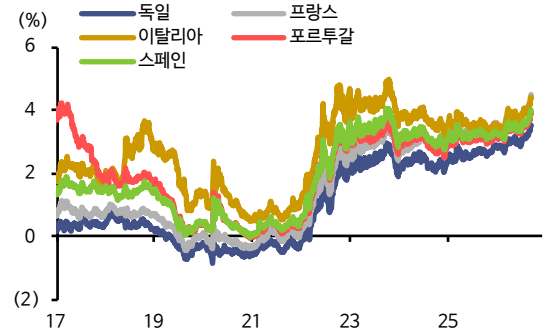
자료: LSEG

M3 유동성과 은행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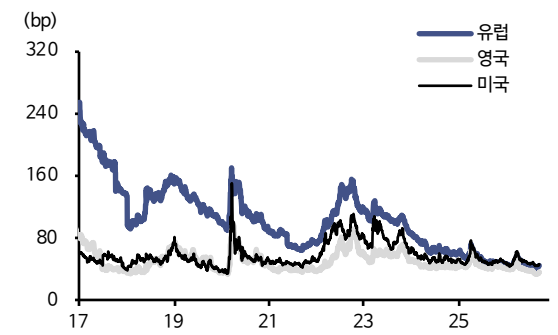
자료: LSEG

주요국 국채금리



자료: LSEG

금융기관 CDS 프리미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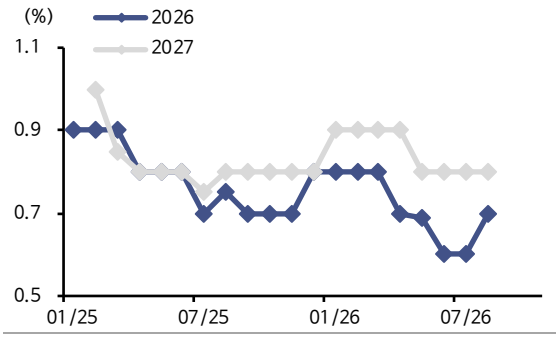


자료: LSEG

일본경제 Chart 2026년 경제성장률 컨센서스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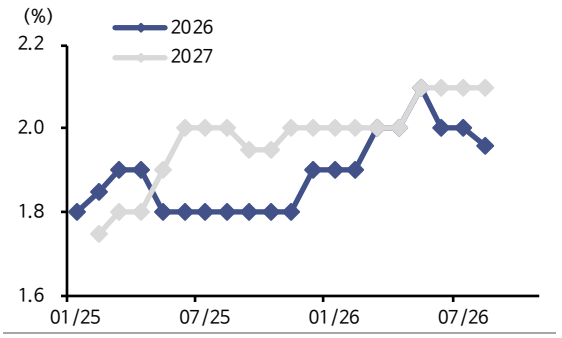
- 2026년 경제성장률 컨센서스 0.7%로 전월대비 소폭 상향. 소비자물가 2.0%로 전월대비 소폭 하향
- 8월 제조업지수 54.9 기록하며 확장 국면 유지. 7월 산업생산 전년동월대비 3.9% 늘며 증가세 지속

GDP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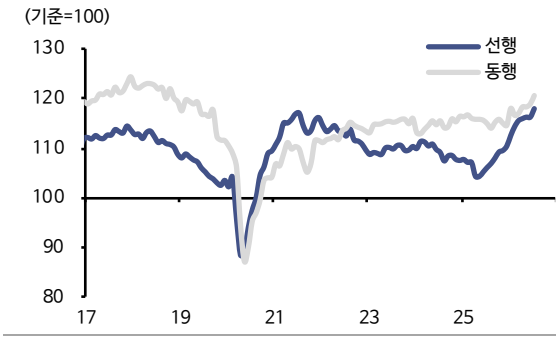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소비자물가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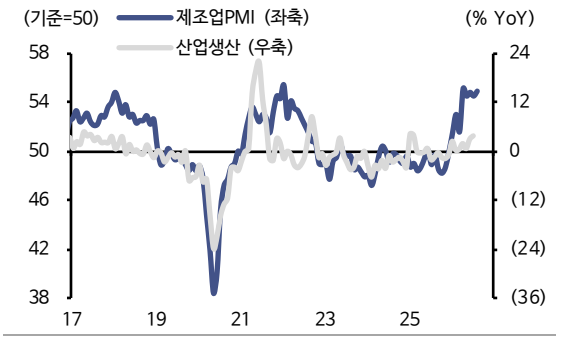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선행지수와 동행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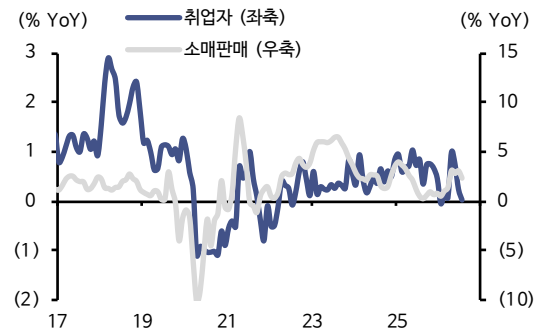
자료: LSEG

제조업PMI와 산업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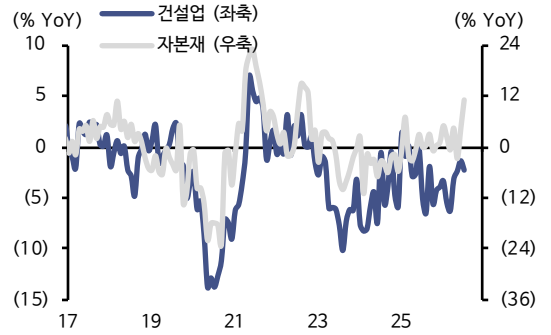
자료: LSEG

취업자와 소매판매



자료: LSEG

건설업생산과 자본재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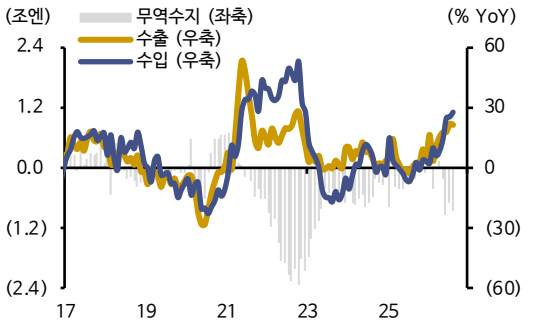
자료: LSEG

일본경제 Chart

에너지 가격 상승에 무역수지 적자 지속, 통화량 증가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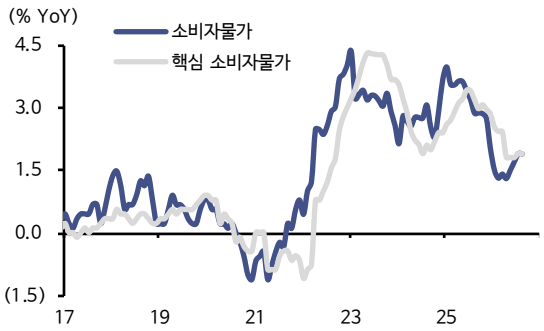
- 8월 수출 전년동월대비 21.4% 증가에도 수입 27.9% 증가하며 무역수지 적자 지속
- 8월 M1 통화량 전년동월대비 0.1% 감소한 반면, M2 통화량 2.0% 증가 기록

수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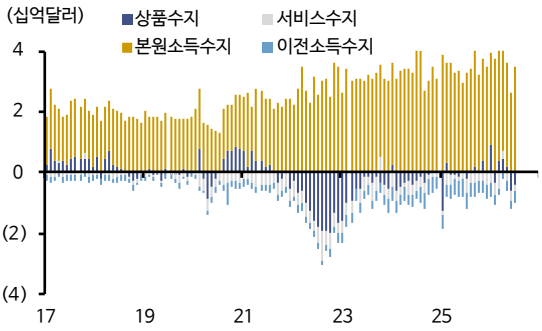
자료: LSEG

인플레이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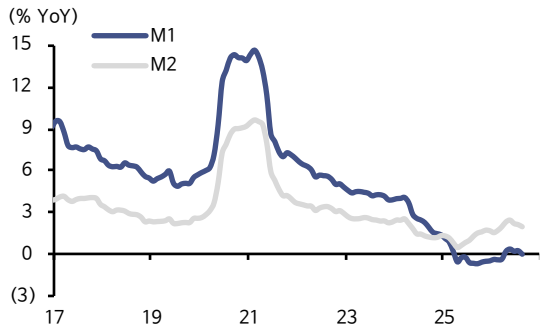
자료: LSEG

경상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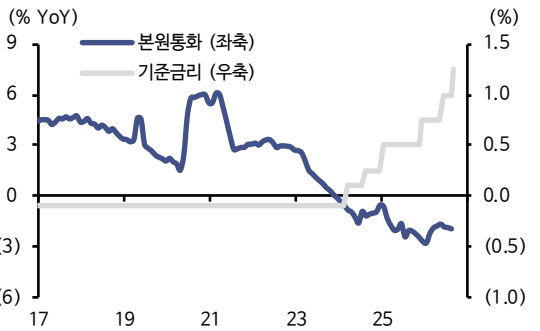
자료: LSEG

유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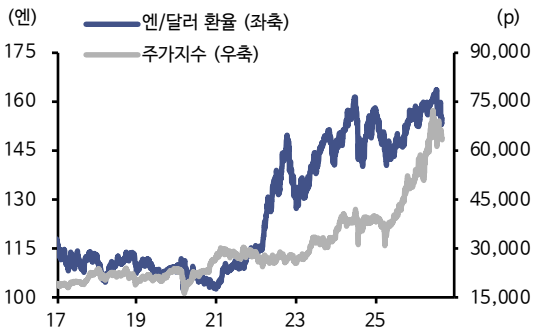
자료: LSEG

본원통화 증감폭과 기준금리



자료: LSEG

엔/달러 환율과 주가지수



자료: LSEG

주요경제지표 동향 및 전망

연도별 주요국 주요경제지표, 기준금리, 원유가격, 환율 동향 및 전망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F	2027F
GDP									
세계(구매력 기준)	(%)	(2.8)	6.3	3.5	3.0	3.3	3.2	2.9	2.8
세계(시장환율 기준)	(%)	(3.2)	6.1	3.0	2.5	2.8	2.8	2.7	2.5
미국	(%)	(2.1)	6.2	2.5	2.9	2.8	2.1	2.0	1.8
중국	(%)	2.0	9.3	3.2	5.4	5.0	5.0	4.3	4.0
유로	(%)	(6.2)	6.3	3.7	0.5	0.9	1.5	0.7	1.1
일본	(%)	(4.3)	3.7	1.3	0.7	(0.2)	1.2	0.8	1.3
CPI									
미국	(%)	1.3	4.7	8.0	4.1	3.0	2.6	3.4	2.2
중국	(%)	2.5	0.8	1.9	0.3	0.2	(0.1)	1.0	1.2
유로	(%)	0.3	2.6	8.4	5.5	2.4	2.1	2.9	2.4
일본	(%)	(0.2)	(0.2)	2.3	3.0	2.6	3.1	2.0	2.9
기준금리									
미국	(% 연말)	0.25	0.25	4.50	5.50	4.50	3.75	4.25	3.75
중국	(% 연말)	3.85	3.85	3.65	3.45	3.10	3.00	3.00	2.80
유로	(% 연말)	0.00	0.00	2.50	4.50	3.15	2.15	2.65	2.65
일본	(% 연말)	(0.10)	(0.10)	(0.10)	(0.10)	0.25	0.75	1.25	1.75
국제원유가격									
WTI	(달러/배럴 평균)	39.2	68.0	94.9	77.5	76.6	65.5	87.7	83.0
환율									
달러/유로	(평균)	1.142	1.183	1.053	1.082	1.082	1.130	1.161	1.123
	(연말)	1.230	1.132	1.066	1.106	1.040	1.174	1.170	1.100
엔/달러	(평균)	106.8	109.9	131.7	140.4	151.6	149.6	155.6	139.0
	(연말)	103.2	115.1	133.0	141.3	157.0	156.7	145.0	138.0
위안/달러	(평균)	6.902	6.452	6.734	7.089	7.200	7.192	6.786	6.750
	(연말)	6.530	6.357	6.903	7.104	7.307	6.991	6.680	6.840

자료: IMF, LSEG, 신한투자증권

분기별 주요국 주요경제지표, 기준금리, 원유가격, 환율 동향 및 전망

		2025				2026F				2027F			
		1Q	2Q	3Q	4Q	1Q	2Q	3QF	4QF	1QF	2QF	3QF	4QF
GDP													
미국	(% SAAR)	(0.6)	3.8	4.4	0.5	2.1	1.5	2.1	1.3	1.9	1.9	1.9	1.9
중국	(% YoY)	5.4	5.2	4.8	4.5	5.0	4.3	4.2	4.0	3.8	3.9	4.0	4.2
유로	(% QoQ)	0.6	0.1	0.3	0.2	(0.0)	0.4	0.1	0.3	0.3	0.3	0.4	0.4
일본	(% SAAR)	2.0	1.1	(2.3)	0.7	1.9	1.4	0.5	1.2	1.5	1.5	1.5	1.5
CPI													
미국	(% YoY)	2.7	2.5	2.9	2.8	2.7	3.8	3.4	3.3	3.0	1.9	2.1	1.9
중국	(% YoY)	(0.1)	(0.1)	(0.4)	0.4	0.9	1.3	1.0	0.9	1.1	0.8	1.4	1.7
유로	(% YoY)	2.4	2.0	2.1	2.1	2.0	3.0	3.2	3.6	3.3	2.5	2.1	2.0
일본	(% YoY)	3.1	3.4	2.9	2.8	1.7	1.5	2.4	2.6	3.6	3.0	2.7	2.4
정책금리													
미국	(% 기말)	4.50	4.50	4.25	3.75	3.75	3.75	4.00	4.25	4.25	4.00	4.00	3.75
중국	(% 기말)	3.1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2.90	2.90	2.80
유로	(% 기말)	2.65	2.15	2.15	2.15	2.15	2.40	2.65	2.65	2.90	2.90	2.90	2.90
일본	(% 기말)	0.50	0.50	0.50	0.75	0.75	1.00	1.25	1.25	1.50	1.50	1.75	1.75
국제원유가격													
WTI	(달러/배럴 평균)	71.8	64.8	65.7	59.6	71.9	95.9	87.0	96.0	92.0	84.0	80.0	76.0
환율													
달러/유로	(평균)	1.053	1.134	1.169	1.164	1.170	1.163	1.150	1.160	1.150	1.130	1.110	1.100
	(기말)	1.080	1.155	1.175	1.174	1.152	1.143	1.150	1.170	1.140	1.120	1.110	1.100
엔/달러	(평균)	152.5	144.5	147.5	154.1	156.9	159.3	157.0	149.0	142.0	138.0	138.0	138.0
	(기말)	149.5	144.4	147.7	156.7	159.1	162.5	154.0	145.0	140.0	138.0	138.0	138.0
위안/달러	(평균)	7.280	7.235	7.160	7.093	6.928	6.806	6.730	6.680	6.700	6.720	6.760	6.820
	(기말)	7.260	7.165	7.127	6.991	6.901	6.788	6.700	6.680	6.700	6.740	6.780	6.840

자료: LSEG, 신한투자증권

연도별 국내 주요경제지표, 환율 동향 및 전망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F	2027F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0.7)	4.7	2.9	1.5	2.2	1.1	3.4	2.8
총소비	(%)	(2.2)	4.2	4.2	2.0	1.6	1.8	2.0	1.9
민간소비	(%)	(4.6)	3.7	4.2	2.1	1.3	1.5	2.2	2.0
정부소비	(%)	5.2	5.6	4.0	1.9	2.2	2.7	1.6	1.7
총투자	(%)	0.8	4.4	0.4	(1.5)	(1.5)	(2.2)	3.2	6.7
고정투자	(%)	2.8	4.3	(0.2)	(0.2)	(0.1)	(3.4)	4.0	6.0
건설	(%)	1.7	(0.2)	(3.5)	(0.5)	(2.0)	(9.7)	(0.4)	3.9
설비	(%)	4.3	10.2	(0.3)	(0.2)	1.0	1.5	7.7	8.0
지식재산생산물	(%)	3.0	6.5	7.6	0.2	2.4	3.0	5.6	5.5
총수출	(%)	(1.7)	11.8	4.0	3.5	7.6	4.3	9.1	3.6
총수입	(%)	(3.3)	11.2	4.0	2.2	3.8	3.3	7.8	5.1
대외거래									
수출	(십억달러)	512.5	644.4	683.6	632.2	683.6	709.3	1,114.0	1,384.1
증가율	(%)	(5.5)	25.7	6.1	(7.5)	8.1	3.8	57.1	24.2
수입	(십억달러)	467.6	615.1	731.4	642.6	631.8	631.9	771.2	936.2
증가율	(%)	(7.1)	31.5	18.9	(12.1)	(1.7)	0.0	22.0	21.4
무역수지	(십억달러)	44.9	29.3	(47.8)	(10.3)	51.8	77.4	342.8	447.9
경상수지	(십억달러)	75.9	85.2	29.8	32.8	99.0	123.1	403.5	472.0
물가									
소비자물가	(%)	0.5	2.5	5.1	3.6	2.3	2.1	2.6	2.3
고용									
실업률	(%)	3.9	3.7	2.9	2.7	2.8	2.8	2.9	2.9
환율									
원/달러	(평균)	1,180.0	1,144.7	1,292.2	1,305.9	1,364.4	1,422.0	1,426.9	1,340.0
	(연말)	1,082.1	1,188.8	1,264.5	1,288.0	1,472.3	1,439.5	1,310.0	1,380.0
원/유로	(평균)	1,346.0	1,352.8	1,357.4	1,412.4	1,475.1	1,606.6	1,655.5	1,503.8
	(연말)	1,338.2	1,342.3	1,351.2	1,426.6	1,528.7	1,685.7	1,532.7	1,518.0
원/100엔	(평균)	1,105.3	1,037.9	983.4	931.1	900.4	950.8	916.2	964.3
	(연말)	1,053.8	1,030.2	953.2	912.7	936.5	917.6	903.4	1,000.0
원/위안	(평균)	170.9	177.4	191.6	184.2	189.2	197.7	210.2	198.5
	(연말)	167.0	186.3	181.4	180.8	201.3	196.8	196.1	201.8

자료: 한국은행, 무역협회, 통계청, LSEG, 신한투자증권

분기별 국내 주요경제지표, 기준금리, 환율 동향 및 전망

		2025				2026F				2027F			
		1Q	2Q	3Q	4Q	1Q	2QF	3QF	4QF	1QF	2QF	3QF	4QF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YoY)	(0.0)	0.8	2.1	1.7	3.8	3.8	2.7	3.2	2.3	2.6	3.0	3.4
	(% QoQ)	(0.2)	0.6	1.4	(0.1)	1.8	0.6	0.3	0.4	1.0	0.9	0.8	0.8
총소비	(% YoY)	0.9	1.5	2.2	2.7	2.9	2.4	1.5	1.3	1.6	1.8	2.0	2.2
민간소비	(% YoY)	0.5	1.1	2.0	2.4	2.8	2.5	1.7	1.7	1.7	1.9	2.1	2.2
정부소비	(% YoY)	2.0	2.5	2.9	3.6	3.1	2.1	1.0	0.3	1.2	1.6	1.8	2.0
총투자	(% YoY)	(2.7)	(2.6)	(2.0)	(1.7)	0.4	2.1	3.9	6.3	6.2	7.7	6.6	6.1
고정투자	(% YoY)	(4.2)	(3.6)	(2.5)	(3.1)	1.3	2.8	4.2	7.6	6.2	6.9	5.8	5.3
건설	(% YoY)	(12.6)	(11.2)	(7.8)	(7.0)	(1.7)	(1.1)	(0.9)	2.1	2.2	3.8	4.4	5.1
설비	(% YoY)	4.6	2.9	0.4	(2.0)	4.3	6.5	7.7	12.2	7.4	9.3	8.2	7.2
지식재산생산물	(% YoY)	2.1	3.4	4.2	2.4	2.5	5.0	6.2	8.5	8.7	6.1	4.5	2.8
총수출	(% YoY)	1.5	4.3	6.8	4.6	11.8	8.9	6.9	9.0	4.0	3.3	3.4	3.5
총수입	(% YoY)	1.6	3.5	4.3	3.9	8.5	6.2	7.1	9.4	6.2	6.2	4.6	3.4
대외거래													
수출	(십억달러)	159.5	175.1	184.9	189.8	220.8	275.3	309.3	308.6	327.5	347.6	354.5	354.5
	(% YoY)	(2.3)	2.1	6.5	8.4	38.4	57.2	67.3	62.6	48.3	26.3	14.6	14.9
수입	(십억달러)	152.8	154.4	162.5	162.2	169.8	188.9	200.3	212.2	219.8	233.9	240.3	242.2
	(% YoY)	(1.3)	(1.7)	1.6	1.4	11.1	22.3	23.3	30.8	29.4	23.8	20.0	14.1
무역수지	(십억달러)	6.7	20.7	22.4	27.6	51.0	86.4	109.0	96.5	107.7	113.7	114.2	112.3
경상수지	(십억달러)	19.5	28.4	36.0	39.2	74.4	116.6	108.5	104.0	115.0	119.0	119.0	119.0
물가													
소비자물가	(% YoY)	2.1	2.1	2.0	2.4	2.1	3.0	2.9	2.5	2.5	1.9	2.3	2.6
고용													
실업률	(% SA)	2.8	2.7	2.5	3.1	2.9	2.8	2.7	3.0	3.0	2.9	2.8	3.1
환율													
원/달러	(평균)	1,452.7	1,400.9	1,386.9	1,452.2	1,467.5	1,495.0	1,415.0	1,330.0	1,320.0	1,330.0	1,340.0	1,370.0
	(기말)	1,473.7	1,355.3	1,405.0	1,439.5	1,517.0	1,549.3	1,350.0	1,310.0	1,320.0	1,340.0	1,350.0	1,380.0
원/유로	(평균)	1,529.3	1,589.4	1,619.3	1,688.3	1,712.9	1,738.9	1,627.3	1,542.8	1,518.0	1,502.9	1,487.4	1,507.0
	(기말)	1,587.9	1,591.8	1,644.5	1,685.7	1,733.4	1,771.3	1,552.5	1,532.7	1,504.8	1,500.8	1,498.5	1,518.0
원/100엔	(평균)	953.6	970.6	939.7	940.2	932.7	938.3	901.3	892.6	929.6	963.8	971.0	992.8
	(기말)	981.8	939.0	943.7	917.6	946.7	953.3	876.6	903.4	942.9	971.0	978.3	1,000.0
원/위안	(평균)	199.5	193.7	193.6	204.2	211.7	219.7	210.3	199.1	197.0	197.9	198.2	200.9
	(기말)	202.9	191.2	196.8	196.8	221.7	228.2	201.5	196.1	197.0	198.8	199.1	201.8

자료: 한국은행, 무역협회, 통계청, LSEG, 신한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하건형, 문서현).
-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관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당자료는 상기 회사 및 상기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